

국장과 화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인 권 닥터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적보다는 잘 생겼는데요….” “하하하하하” “저는 2016년에 복직을 합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권 닥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광 팬이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저는 연애인이 아닙니다” “2016년 제가 복직 되어지는 저의 웨이지 공안국에 방문하여 저의 경찰동료들 전체검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병원이 있는데…굳이 저의 병원에서………….” “하하하하…………그래도 제가 정식 초청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새롭게 부임한 병원에 체면을 세워주고, 병원 매출을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봄에 웨이시에 방문을 하여 “의료 활동”을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웨이시 공안국에 의료활동하고 남긴 기념 사진 입니다)

댓글5

최윤태(서울)18.05.19 15:30 오랫동안 들러 선생님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박정원(서울)18.05.19 21:43 선생님의 글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시금 다잡 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쭙어봅니다 설탕, 밀가루 등은 먹지 않는게 좋은지는 알고있 는데요 설탕 대체로 중국에서 70~80%이상 생산되는 나한과가 100% 주원료인 설탕맛과 유사한 천연감미료. 모그리톨이라고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될까요? 가급적 먹지 않는 조 리법으로 음식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써봐도 될까 싶을때가 있어 여쭙어봅니다 김영애(부산)18.05.25 18:03 올려주신 글들에서 참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간단한 댓글에 달기가 뭣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 이병준(중국)19.03.14 19:44 감동이네요. 저도 중국에 있지만, 정말 대단하세요